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VIP REPORT

독일 및 일본 사례로 본 서비스수지 개선 방안

목 차

■ 독일 및 일본 사례로 본 서비스수지 개선 방안

Executive Summary i

1. 서비스수지 적자와 부문별 적자 추이 1

2.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수지 특징 5

3. 정책적 시사점 10

■ HRI 경제 지표 13

■ 서비스수지 적자와 부문별 적자 추이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 일본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서비스 적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양국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서비스 지급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8월 누적 서비스 적자는 전년동기대비 37.7% 증가한 13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2010년 1분기 서비스 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60.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서비스 적자 확대는 주로 5대 분야에서 발생한다. 2010년 상반기 5대 분야의 적자(144.5억 달러)가 서비스 적자(102.1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이다.

서비스수지 적자 중 가장 큰 항목은 운항항만경비다. 이는 국내 항만 경쟁력이 취약하여 운항항만경비 지급이 수입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운항항만경비의 2010년 상반기 적자 규모는 53.8억 달러로 2009년 상반기의 38.5억 달러에 비해 39.7% 증가했다.

또한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핵심원천기술이 부족하여 상품 수출 증가에 따른 특허권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허권 등 사용료의 적자 규모는 2009년 하반기 26.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10년 상반기에도 25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 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분야는 전문서비스로 이는 전문서비스업의 영세성 및 규제 과다에 따른 낮은 국제 경쟁력 때문이다. 전문서비스업의 2010년 상반기 적자 규모는 24억 달러이며, 이중 광고 및 시장조사가 19.1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개무역 적자 역시 확대되고 있다. 중개무역의 적자 규모 역시 2009년 하반기 28.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10년 상반기는 21.3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섯 번째로 적자규모가 큰 분야는 유학연수이다. 유학연수의 적자 규모는 2009년 상반기 감소한 이후 최근 들어 이전 수준으로 회귀함에 따라 2010년 상반기에는 20.4억 달러를 기록했다.

■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수지 특징

독일의 서비스 적자는 2000년 550.2억 달러에서 2009년 253.6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독일의 서비스수지가 크게 개선된 것은 독일 정부가 수출이 가능한 의료, 환경, 사업서비스 등 지식집약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서비스 R&D 지원 강화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적자 규모를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히 사업서비스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독일의 사업서비스 수지는 2000년 -80.1억 달러에서 2005년 28억 달러로 흑자 전환된 이후 크게 개선되어 2008년에는 129.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0년도에 비해 209.8억 달러 개선된 것이다.

이처럼 사업서비스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사업서비스 중 R&D, 공학 및 기타 기술 서비스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R&D지원액의 15%가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원되었고 이로 인해 R&D수지는 2000년 -2.9억 유로에서 2008년 26.2억 유로로, 공학 및 기타 기술 서비스수지는 -14.3억 유로에서 45.9억 유로로 흑자 전환되었다.

둘째, 중개무역의 흑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독일 중개무역의 흑자 규모는 2000년 45.4억 유로에서 2008년에는 118.9억 유로로 확대되었다.

셋째, 지식서비스에 대한 수출 지원에도 불구하고 법률·회계·컨설팅 수지가 악화되었다. 독일의 경우 법률 시장 개방으로 인해 독일 로펌들이 영국이나 미국 로펌들에 의해 M&A, 법률·회계·컨설팅 수지는 2000년 47.8억 달러에서 2008년 59.6억 달러로 악화된 사례가 있다.

일본의 서비스 적자 역시 2000년 476.1억 달러에서 2009년 204.5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이는 **첫째 일본 정부가 사업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사업서비스 중 중개무역 흑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중개무역 흑자 규모는 2000년 1,476억 엔에서 2008년 **1조 3,500억 엔**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지적 재산 창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특허권 등 사용료 수입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는 2009년 7.8억 달러에서 2008년 74억 달러로 흑자 전환되었다.

셋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여행수지의 적자 규모 역시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여행수지는 2000년 -285.2억 달러에서 2008년 -170.6억 달러로 동기간 114.6억 달러 개선되었다.

■ 정책적 시사점

첫째, 일본, 독일과 같이 해외직접투자 증가 및 종합상사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개무역 적자를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 발전 가능성이 크고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켜, 중개 무역의 거점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종합상사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산학연 협력체를 구성하고,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독일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통해 전문서비스 부문의 적자를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독일이 지식집약서비스에 대한 수출 지원을 한 것과 같이 전문서비스업을 수출 유망 산업으로 분류하고 국내 전문서비스 업체가 해외로 진출할 때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문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인한 서비스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국내 전문서비스업체로부터 법률, 회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셋째, 일본과 같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의 적자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 감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지식재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일본과 같이 만성적인 적자를 유발하는 여행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일본과 같이 해외 관광객의 국내 유입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국내 학생의 해외 유학을 국내로 전환시키고, 해외 유학생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의 서비스 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항항만경비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항만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 항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향후 해운 수요가 증가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항만 개발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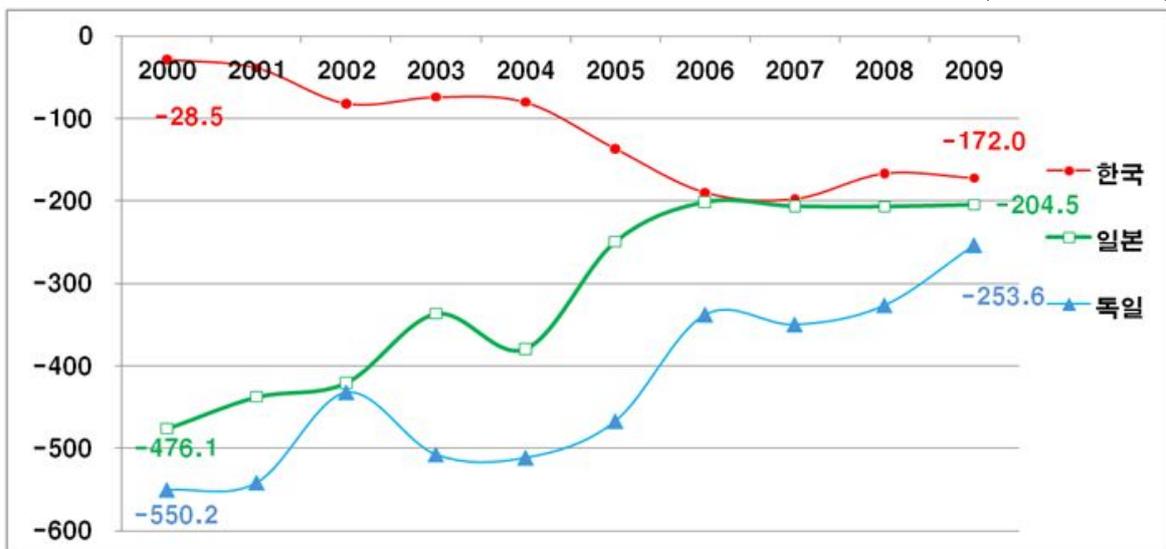
1. 서비스수지 적자와 부문별 적자 추이

○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서비스 적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2000년 28.5억 달러에서 2009년 172억 달러로 확대되고 있음
- 반면 독일의 서비스수지는 2000년 -550.2억 달러에서 2009년 -253.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 일본의 서비스 적자 규모 역시 2000년 476.1억 달러에서 2009년 204.5억 달러로 축소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수지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서비스수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한·독·일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최근 들어 서비스 지급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8월 누적 서비스 적자는 134.9억 달러로 동기대비 37.7% 증가한 134.9억 달러를 기록함

- 서비스 지급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글로벌 경기 침체 직전인 2008년 3분기 서비스수입과 서비스지급은 사상 최대치인 142억 달러와 195.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함
 - 2010년 2분기 서비스 지급은 전저점(2009년 1분기 167.7억 달러) 대비 51.1억 달러 증가한 반면, 서비스 수입은 전저점(2009년 2분기 135.5억 달러) 대비 41.6억 달러 증가하는데 그침
- 이 때문에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 급감하던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9년 2분기 이후 확대되고 있음
 -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8년 3분기 58.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8년 4분기 14.4억 달러, 2009년 1분기 19.3억 달러로 급감함
 - 2009년 2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는 2010년 1분기 분기 누적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60.4억 달러를 기록함

< 분기별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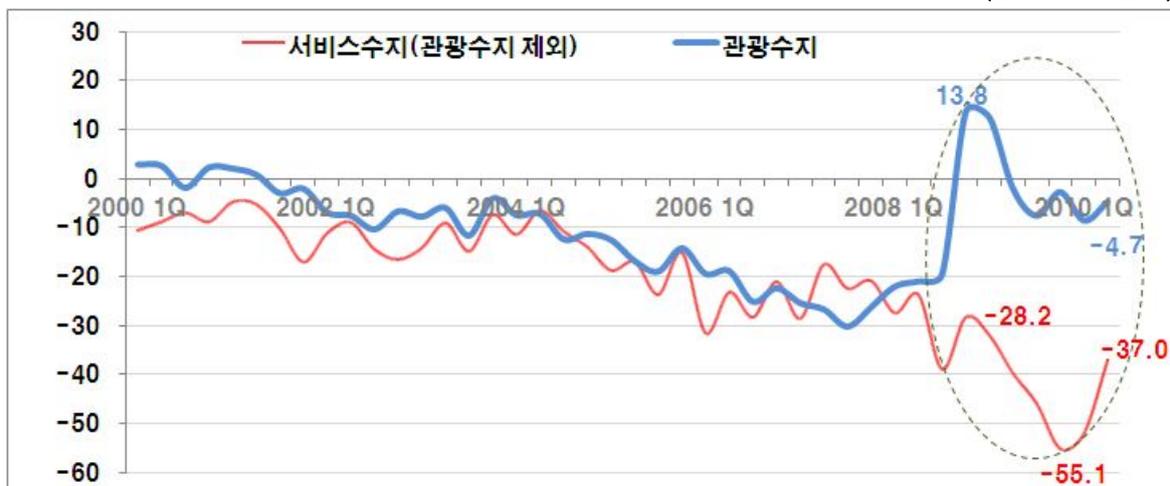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특히 최근 서비스수지 적자의 확대는 그동안 서비스 적자의 주원인이었던 관광수지 개선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음

-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원화 약세에 따른 해외 여행 수요 감소로 관광수지(일반여행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음
 - 원/달러, 원/엔, 원/위안 환율은 2008년 3분기 평균 1,062.6원, 988.8원, 155.3원에서 1,362.8원, 1,421.4원, 199.3원으로 급등함
 - 이로 인해 2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이던 관광수지는 2008년 4분기 이후 크게 개선됨
- 관광수지를 제외한 서비스 적자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음
 - 관광수지는 한국 서비스수지 적자에의 주원인이 되어 왔음
 - 관광수지를 제외한 서비스 적자는 2008년 4분기 28.2억 달러로 전기에 비해 2.3억 달러 감소함
 - 그러나 2009년 1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09년 4분기에는 사상 최대치인 55.1억 달러의 적자 폭을 기록함
 - 2010년 1분기와 2분기 관광수지를 제외한 서비스 적자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

< 분기별 관광수지를 제외한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독일 및 일본 사례로 본 서비스수지 개선 방안

○ 서비스수지 적자는 운항항만경비, 유학연수, 특허권 등 사용료, 중개무역, 전문서비스업의 5대 분야에서 발생함

- 사업서비스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전문서비스와 중개무역 분야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 사업서비스 적자는 2006년 71.7억 달러에서 2009년 157.9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주로 전문서비스와 중개무역 수지 악화에 의한 것임
- 관광수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유학연수 분야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2008년 하반기 이후 서비스수지 적자를 유발시키는 5대 업종에는 운항항만경비, 유학연수, 특허권 등 사용료, 중개무역, 전문서비스가 포함됨
 - 2008년 상반기까지 한국의 서비스 적자를 유발시키는 주요 업종은 운항항만경비와 관광수지였으나, 최근 원화 약세로 인해 관광수지는 크게 개선됨
 - 운항항만경비 수지 적자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항목별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서비스수지	운항항만경비	유학연수	관광 ¹⁾	특허권 사용료	중개무역	전문서비스 ²⁾
2006 1H	-92.9	-40.1	-20.5	-38.2	-14.9	-14.9	-12.1
2006 2H	-96.8	-43.4	-24.4	-47.5	-11.2	-19.2	-13.6
2007 1H	-98.1	-49.4	-23.9	-52.1	-15.6	-19.6	-14.0
2007 2H	-99.6	-57.8	-25.9	-56.5	-18.4	-22.0	-14.4
2008 1H	-94.0	-61.0	-22.3	-43.0	-19.9	-25.4	-17.8
2008 2H	-72.7	-61.1	-22.0	-5.7	-12.8	-26.2	-23.2
2009 1H	-60.9	-38.5	-16.2	10.7	-12.2	-19.2	-23.0
2009 2H	-111.1	-42.8	-23.3	-10.1	-26.5	-28.8	-26.5
2010 1H	-102.1	-53.8	-20.4	-13.1	-25.0	-21.3	-24.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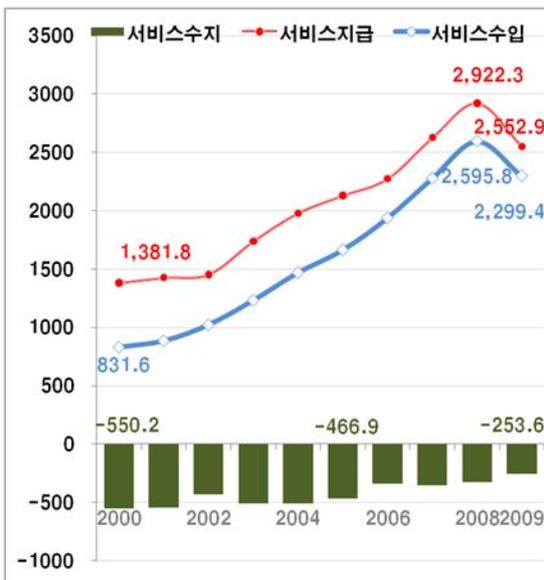
1) 국제수지표 상 여행수지는 유학연수와 일반여행으로 구분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여행과 여행수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관광수지라는 용어를 사용함.
 2) 표준통계에 분류에 따르면, 전문서비스에는 법률, 회계 및 세무, 광고, 시장 및 여론조사, 경영컨설팅이 포함됨.

2.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수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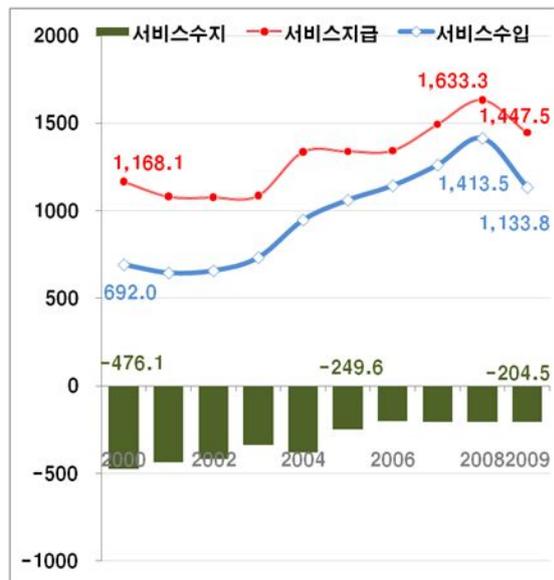
○ 한국과 달리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축소되고 있음

- 독일은 서비스지급보다 서비스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
 - 독일의 서비스 적자는 2000년 550.2억 달러에서 2008년 326.5억 달러 그리고 2009년에는 253.6억 달러로 축소됨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독일의 서비스 수입은 연평균 12% 증가한 데 반해 서비스 지급은 7.1% 증가하는데 그침
- 일본 역시 서비스지급보다 서비스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
 - 일본 서비스 적자는 2000년 476.1억 달러에서 2009년 204.5억 달러로 개선됨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일본의 서비스 수입은 연평균 5.6% 증가한 데 반해 서비스 지급은 2.4% 증가하는데 그침

< 독일 연도별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 일본 연도별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자료 : OECD, International Trade and Balance of Payments.

독일 및 일본 사례로 본 서비스수지 개선 방안

○ 독일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업서비스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수지가 크게 개선됨

- 독일은 수출이 가능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함³⁾
 - 의료서비스, 환경서비스, 사업서비스 등 지식집약서비스를 수출 유망 서비스 분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함
 - 1990년 이후 R&D 지원액의 15%가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원됨
- 독일의 여행수지는 크게 악화되는데 반해 건설서비스, 금융, 컴퓨터, 사업서비스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
 - 건설서비스와 컴퓨터서비스 수지는 2000년 -7.2억 달러와 -11.6억 달러에서 2008년 33.4억 달러와 16.2억 달러로 흑자 전환됨
 - 특히 사업서비스수지는 2000년 -80.1억 달러에서 2008년 129.8억 달러로 209.8억 달러가 개선됨

< 독일 연도별 세부 항목별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운수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 서비스	개인 문화 오락	정부 서비스
2000	-55.8	-344.8	-16.9	-7.2	-3.3	9.0	-11.6	-26.8	-80.1	-32.0	20.5
2001	-45.3	-338.4	-15.8	-5.3	6.0	9.7	-12.6	-21.8	-104.5	-35.0	31.2
2002	-56.4	-330.8	-18.0	4.8	60.7	13.4	-6.6	-14.6	-101.8	-17.3	49.3
2003	-80.9	-421.3	-14.0	16.7	32.9	16.0	-5.8	-8.4	-67.0	-19.2	57.4
2004	-77.0	-438.3	-14.1	12.2	-15.7	16.5	-0.6	-3.2	-17.0	-21.9	66.4
2005	-48.9	-451.6	-15.8	38.4	-25.8	20.2	-1.7	-15.0	28.0	-23.3	45.9
2006	-69.0	-411.1	-17.7	48.7	12.6	27.4	6.6	-23.3	97.8	-37.5	46.9
2007	-68.1	-469.8	-19.8	39.3	25.7	39.1	7.5	-29.7	101.7	-16.8	45.3
2008	-70.8	-507.5	-18.0	33.4	1.5	57.4	16.2	-31.2	129.8	-19.4	34.2
격차 ¹⁾	-15.0	-162.7	-1.2	40.6	4.8	48.3	27.8	-4.4	209.8	12.6	13.8

자료 : OECD, International Trade and Balance of Pay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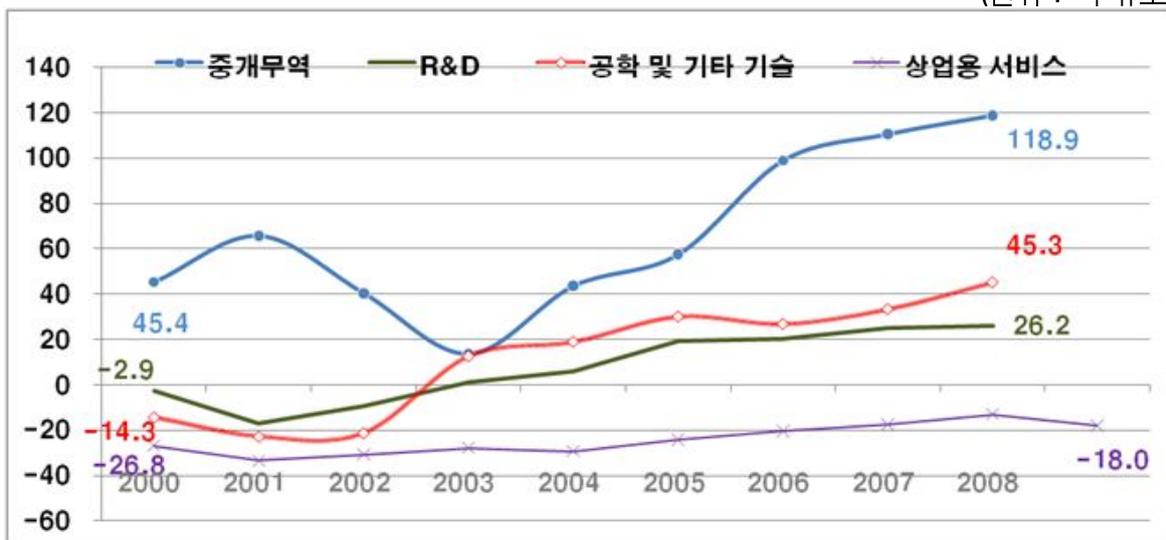
주 1. 격차는 2008년 실적과 2000년 실적의 차.

3) 산업연구원 산업별 기초분석.

- 독일의 사업서비스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R&D와 공학 서비스가 적자에서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되었고 중개무역의 흑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R&D 수지는 2000년 -2.9억 유로의 적자에서 2008년에는 26.2억 유로로, 공학 및 기타 기술 서비스수지 역시 동기간 -14.3억 유로에서 45.3억 유로로 흑자 전환됨
 - 독일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학 및 기타 기술 서비스 수지는 2000년 -14.3억 달러의 적자에서 2008년에는 45.3억 달러로 흑자 전환됨
 - 독일 중개무역의 흑자 규모는 2000년 45.4억 유로에서 2008년에는 118.9억 유로로 확대됨
- 반면 상업용 서비스 중 법률·회계·컨설팅 수지 적자는 오히려 확대됨
 - 상업용 서비스 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2000년 -26.8억 유로에서 2008년 -18억 유로로 크게 개선됨
 - UN 통계에 따르면 상업용 서비스 수지 중 법률·회계·컨설팅 수지는 2000년 -47.8억 달러에서 2008년 -59.6억 달러로 악화됨
 - 독일의 경우, EU 출범 이후 법률 서비스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영미계 로펌들(law firm)에 의해 독일 로펌(law firm)들이 M&A되었기 때문임

< 독일 사업서비스 주요 업종 수지 추이 >

(단위 : 억 유로)



자료 : 독일연방은행 국민계정(Deutsche Bundesbank, Balance of Payments).

- 일본은 장기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여행 및 사업 서비스수지가 크게 개선되었고,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수지 역시 개선됨
 - 일본은 비즈니스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고,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함
 - 일본은 2003년 '신산업창조전략'을 통해 콘텐츠산업, 건강 및 복지기기서비스, 사업서비스, 환경 및 에너지기기 서비스, 관광 및 집객교류 서비스의 5개 서비스업종을 전략 업종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함⁴⁾
 - 2006년에는 '신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인재파견, 실무교육서비스, 정보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함⁵⁾
 -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수립하고 2003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함⁶⁾
 - 일본 운수성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1996년 'Welcome Plan 21', 2000년 '신 Welcome Plan 21', 2003년 'Visit Japan Campaign'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⁷⁾
 - 일본의 서비스 적자가 축소된 것은, 여행 및 사업서비스수지는 크게 개선, 특허권 등 사용료는 흑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 사업서비스에 대한 지원책 강화를 통해 사업 서비스수지는 2000년 -65.8억 달러에서 2008년 6.5억 달러로 흑자 전환됨
 - 지식재산권 보호와 함께 원천 기술 개발로 일본의 특허권 등 사용료는 2000년 -7.8억 달러에서 2008년 74억 달러로 흑자 전환됨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여행수지는 2000년 -285.2억 달러에서 2008년 -170.6억 달러로 114.6억 달러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일본 서비스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함

4) 박연숙·최성호(2006),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정책사례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5) 최봉현 외(2009), "지식서비스 수요활성화 정책 방안", 산업연구원.

6) 박귀현(2004), "일본의 지적재산전략 추진동향과 시사점", 무역연구소.

7) 김민우·노원종(2008),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과 대책", 한국은행.

< 일본 연도별 세부 항목별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운수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 서비스	개인 문화 오락	정부 서비스
2000	-77.2	-285.2	-3.3	18.4	-18.5	9.8	-15.0	-7.8	-65.8	-11.6	-2.4
2001	-73.3	-231.8	-3.5	9.7	-27.6	10.6	-12.3	-6.6	-75.8	-12.7	-3.8
2002	-59.9	-230.3	-1.7	10.4	-35.8	15.0	-10.1	-5.8	-72.9	-8.8	-5.3
2003	-52.3	-200.0	-1.3	11.8	-31.6	13.0	-10.3	12.9	-50.6	-8.0	4.1
2004	-69.2	-269.8	-1.7	20.6	-23.7	17.5	-11.5	20.6	-27.2	-10.1	11.7
2005	-45.6	-250.9	-2.2	24.5	-10.6	23.7	-13.2	29.8	8.2	-10.2	6.7
2006	-51.9	-184.1	-3.0	27.9	-29.9	31.6	-21.6	46.1	9.3	-11.6	5.0
2007	-70.2	-171.5	-4.7	23.9	-27.8	26.0	-26.3	65.6	-19.2	-11.6	3.7
2008	-70.8	-170.6	-4.2	24.0	-41.7	14.7	-30.2	74.0	6.5	-10.6	2.1
격차 ¹⁾	6.5	114.6	-0.9	5.6	-23.2	4.9	-15.2	81.7	72.3	1.0	4.5

자료 : OECD, International Trade and Balance of Payments.

주 1. 격차는 2008년 실적과 2000년 실적의 차.

- 일본 사업서비스수지가 흑자 전환된 것은 중개무역 흑자가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임

- 일본 국민계정 상 사업서비스는 한국과 같이 중개무역, 운용리스 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로 구분됨
- 중개무역은 2000년 1,476억 엔에서 2008년 1조 3,500억 엔으로, 운용리스는 동기간 330억 엔에서 2,468억 엔으로 흑자 폭이 확대됨
- 반면 전문서비스, R&D 등이 포함된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는 2000년 -8,901억 엔에서 2009년에는 -1조 5,299억 엔으로 적자 폭이 확대됨

< 일본 사업서비스 주요 업종 수지 추이 >

(단위 : 억 엔)



자료 : 독일연방은행 국민계정(Deutsche Bundesbank, Balance of Payments).

3. 정책적 시사점

-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 일본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된 사례를 바탕으로, 서비스 적자 축소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독일은 중개무역, R&D, 공학 및 기타 기술이 포함된 사업서비스 적자가 크게 개선됨
 - 일본은 여행, 특허권 등 사용료, 중개무역 수지가 크게 개선됨
 - 반면, 한국은 독일, 일본과 달리 중개무역, 전문서비스업,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의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유학연수 적자는 지속되고 해운항만경비 적자 규모는 확대되고 있음
- 첫째, 일본, 독일과 같이 해외직접투자 증가 및 종합상사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개무역 적자를 축소시켜야 할 것임
 - 일본과 독일의 중개무역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
 - 경제 발전 가능성이 크고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켜, 중개 무역의 거점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종합상사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산학연 협력체를 구성하고,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둘째, 독일과 같이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통해 전문서비스 적자를 축소시켜야 할 것임

- 전문서비스 수출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세금 감면 혜택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전문서비스업을 수출 유망 산업으로 분류하고 국내 전문서비스 업체가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으로 진출할 때 보조금 지원 및 세금 감면 혜택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국내 전문서비스업체로부터 법률, 회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함

○ 셋째, 일본과 같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의 적자를 축소해야 할 것임

-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 감면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신기술 개발 및 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국내외 지식재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넷째, 만성적인 적자를 유발하는 여행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일본과 같이 해외 관광객의 국내 유입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함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가 홍보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애로해소의 방법까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 영화 및 드라마로 형성된 한류를 관광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과 같은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함

- 국내 학생의 해외 유학을 국내로 전환시키고, 해외 유학생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함
 - 글로벌 일류 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국내 석박사 학위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 사례들을 모니터링하고, 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한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한국에서의 교육기회를 연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⁸⁾

○ 다섯째, 동북아 물류 허브로의 도약과 함께 서비스수지의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항만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국내 항만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
- 향후 해운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해외 항만 개발에 투자를 증가시켜야 함
 - 향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항만 이용 시, 개발된 항만을 적극 활용하여 운항항만경비 지급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이들 항만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이나 일본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환적을 유도하여 환적화물 물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HRI}

임상수 연구위원 (happylims@hri.co.kr, 02-2072-6239)

8)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교육시장의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 참조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8 ^P	2009 ^P					2010 ^E			2011 ^E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4.3	-2.2	1.0	6.0	0.2	8.1	7.2	5.9	4.3	
	민간소비 (%)	1.3	-4.4	-1.0	0.7	5.8	0.2	6.3	3.7	4.2	3.8	
	건설투자 (%)	-2.8	2.8	5.1	4.4	5.0	4.4	2.3	-2.9	0.2	1.5	
	설비투자 (%)	-1.0	-23.1	-17.3	-7.0	13.3	-9.1	29.9	30.2	20.0	8.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58	86	131	104	106	427	13	103	230	110	
	통관기준	무역수지(억 \$)	-133	30	170	102	124	426	30	144	320	200
		수출(억 \$)	4,220	744	904	948	1,040	3,635	1,011	1,203	4,575	5,069
		증감률 (%)	(13.6)	(-25.2)	(-21.1)	(-17.6)	(11.7)	(-13.9)	(35.8)	(33.1)	(25.8)	(10.8)
		수입(억 \$)	4,353	714	740	848	929	3,231	981	1,059	4,255	4,869
		증감률 (%)	(22.0)	(-32.7)	(-35.6)	(-31.0)	(1.4)	(-25.8)	(37.4)	(43.2)	(31.7)	(14.4)
소비자물가 상승률 (%)	4.7	3.9	2.8	2.0	2.4	2.8	2.7	2.6	2.9	3.0		
실업률 (%)	3.2	3.8	3.8	3.6	3.3	3.6	4.7	3.5	3.8	3.5		
국제유가 (평균, Dubai, \$/배럴)	94	44	59	68	75	62	76	79	78.8	88.7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3	1,418	1,286	1,239	1,168	1,276	1,143	1,166	1,159	1,09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